

구약성경과 고대 오리엔트 문화 맥락 속에 남겨진 장애아(동)의 출생, 성장, 고용의 흔적

오민수(대신대)

1. 들어가는 말: 장애 언급의 희귀성

구약성경은 장애를 언급하지만, 문헌의 성격에 따라 다소 구별되게 사용한다. 표본적 사례로 언급된 몇 가지 장애의 예는 축복과 저주 중 저주와 심판의 맥락에 있다(신 28; 사 59:10; 습 1:17).¹ 종종 내러티브에서는 전쟁이나 재난을 통해 예기치 않은 후천적 장애발생(엘리, 이스보셋 등)을 보도하고 있으며, 구약의 법전은 장애 보호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구약성경 내러티브나 법전이나 예언서, 그리고 지혜서는 단 한 번도 장애를 주요주제로 다루고 있지는 않다. 성경 구속사적 파노라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분야 신진연구자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0S1A5A8043022).

1 채은하의 논문은 주로 이 부분을 주목하여 현실을 적시하고 있다. 채은하, “구약성경에 나타난 장애인의 현실과 장애인 신학의 한 시도”, 『구약논단』 14집(2008년 3월 31일), 28-50.

마 역시 장애에 집중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하기에, 성경 내의 자료에서 장애의 발병과 발생, 출생, 성장과 생활, 그 가정의 형편, 사회적 반응 등을 초점으로 한 기록을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다.

하지만, 문학적 지평을 넘어서, 실생활에 있어서 장애는 성경 시대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엄연한 현실 세계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본 소고는 장애를 둘러싼 구약성경 시대의 실상을 구약성경과 고대 오리엔트의 자료들을 통해서 반추해 보며, 그들의 인권과 생활권에 대한 담론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연구자는 언어학적 접근과 고대 오리엔트 문화와 비교연구를 할 것이다. 우선, 고대 오리엔트의 작명법을 통해서 유아들의 출생환경을 배경으로 장애아의 출생 가능성을 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연구자는 췌기문자 문헌에서의 장애명과 구약 지혜문학과 연관성, 장애아 출생 이후의 생존환경을 재구성해 볼 것이다. 또한, 고대 시대에도 장애인 고용이 이루어졌음을 밝히며, 주요한 고용시설로 성전/성소에 대한 기록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를 통해 레위기 19장 13-14절을 재조명해 볼 것이다.

2. 장애발생 정황의 단초들

성경 본문은 (신체적이거나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출생 자체를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 이 사실은 우연일 수 있거나, 아니면 예나 지금이나 표준인(비장애인)이 주류인 사회 속에 그런 장애는 당시 언급할만한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겨졌을지도 모른다. 출산력과 분만 시의 어려움은 성경의 서사가들뿐만 아니라, 시인들도 알고 있다. 여성의 불임은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성경 속에 빈번한 주제였다. 구약성경은 산통이

www.kci.go.kr

진행되는 어렵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시적인 회화로 묘사한다.² 놀랍게도 성경 속에는 사산(死産)에 대한 생생한 증언도 있다. 아론은 자신의 누이 미리암에게 발병한 나병을 보고, 사람이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민 12:12)와 같다고 하소연한다. 또한, 욥은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욥 3:16)로 사산(死産)의 현실을 말하고 있다. 전도자 역시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나니”(전 6:3)라며 낙태(落胎)라는 현실을 인지하고 있다.

1) 분만 시 영유아의 사망률과 장애아의 출생 가능성

현대인들의 관심은 당연히, 당시 얼마나 자주 ‘사망사건’이 일어났는냐는 것일 것이다. 오늘날의 통계는 유아와 유아사망을 정량화한다.³ 개발도상국 앙골라의 경우, 출생 후 18퍼센트의 아이들이 생후 1년이 지나기 전 사망한다고 추정한다. 오늘날 제3세계 나라에서는 그 수가 15-20퍼센트 사이이다. 영유아사망 비율은 독일과 스위스에서는 1,000명 중, 4명 정도이다. 이런 영아 사망률의 원인으로는, 영양공급 결핍이나, 편향적인 영양공급, 또한 불결한 위생환경을 들 수 있다. 중세 유럽에서는 절반 이상의 사람이 14세가 되기 이전에 죽었다고 추정한다.⁴ 출생과 사망사건들의 기록보존이 잘 된, 특권화된 귀족층 역시도

2 시편 48장 7절; 이사야 13장 8절; 26장 17절; 42장 14절; 예레미야 6장 24절; 13장 21절; 22장 23절; 49장 24절; 50장 43절; 다니엘 10장 16절; 미가 4장 9절; 마가복음 13장 8절; 요한복음 16장 21절; 사도행전 2장 24절.

3 이어지는 계측 수들의 출처,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rankorder/2091rank.html>.

4 *LexMA V* (1999), Sp. 1114; Iris Ritzmann, *Sorgenkinder. Kranke und behinderte Mädchen und Jungen im 18. Jahrhundert* (Cologne/Weimar/Wien: Böhlau, 2008), 131. 의료가 리츠만은 18세기 동안 신생아 중 25%가 생후 1년을 넘기지 못하였고, 또 다른 25%는 성인 나이에 도달하기 전 죽었다고 추정한다. 물론, 지역적 변동도 참작해야 할 것이다.

위생이나 영양에 있어 최적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유아 사망에서 는 예외가 아니었다.

2) 사산(死産)과 작명법

사산(死産)이나 출산 후 때 이른 유아사망은 성경 본문에서 자주 불행으로 언급된다. 일상 생활에 발생하는 이러한 슬픔은 구약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친숙하였고⁵, 생리학적인 이유로 인하여, 오늘날에 대부분 알려진 종류의 장애는 태아 단계에서 조기에 유산되었던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유아와 아이들의 죽음 역시 안타까운 일이지만, 낫설지 만은 않았다.⁶ 부모님이 새로 태어난 아이들에게 지어주는 이름을 주목 해 볼 때, 그 슬픔이 특별하게 일어나게 되는 시점을 관찰해 볼 수 있게 된다.

부모들은 이름을 고를 때, 일찍 죽은 형제자매(또는, 친척들)를 곧잘 생각했다.⁷ 이것은 מְנַשֵּׂה(머낫세/므낫세, [신생아가 죽은 아이를] ‘잇게 하다’), תַּחַת(타하트/다합, ‘...의 대신에’)⁸, יוֹאֲחִים(요야킴/여호야킴, ‘야훼가 다시 생겨나 게 하시다’)⁹, נִחְמֵיָהּ(느헬야/느헤미야, ‘야훼가 이전에 죽은 아이에 대해 위로하신

5 출애굽기 21장 22-23절; 23장 26절; 민수기 12장 12절; 열왕기하 2장 19-22절; 아가서 3장 16절; 시편 58장 9절; 전도서 6장 3절; 비고, 이사야 37장 3절; 욥기 3장 11절; 시편 22장 30절; 고린도전서 15장 8절. 비고, Marianne Grohmann, *Fruchtbarkeit und Geburt in den Psalmen* (FAT 53; Tübingen: Mohr Siebeck, 2007), 227-271.

6 이에 대해, 사무엘하 12장 15-23절; 열왕기상 14장 1-18절; 16장 34절; 열왕기상 17장 17절; 열왕기하 4장 18-27절; 이사야 65장 20절에서는 여러 다른 연령대를 소개하고 있다.

7 Martin Noth, *Die israelitischen Personennamen im Rahmen der Gemeinsemitischen Namengebung* (BWANT 46; Stuttgart, 2010), 222ff.; Johann J. Stamm, “Hebräische Ersatznamen”, *Beiträge zur hebräischen und altorientalischen Namenkunde* (OBO 30;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80), 59-80.

8 민수기 26장 35절; 역대상 6장 9, 22절; 7장 20절; 비고, 창세기 4장 25절.

9 여호야킴(יְהוֹיָכִים)의 축약형은 요야킴(יֹאֲחִים)이다. 축약형 인명은 느헤미야 12장 10, 12, 26절에 나타난다.

다), 또는 여자 이름 תַּנְחֻמֶת(탄후메트/단후멧)¹⁰와 같은 이름의 언어적 배경이 된다. 이러한 ‘대체명’은 구약성경과 고대 오리엔트 전역에서 아주 빈번하게 등장한다. 솔로몬이란 이름은 특별히 인상 깊은 예이다. 솔로몬의 출생은 그의 부모인 다윗과 밧세바에게 전에 죽은 아이에 대한 ‘대체’이었다(삼하 12:24-25). שְׁלֹמֹה(쉐로모/보상)는 שְׁלֹמֹה(살롬)¹¹에서 유래 되는데, 이 어휘는 ‘평화’만이 아니라 “온전, 회복”(HALAT II, 1395-1399)을 의미한다. 즉, 솔로몬의 출생과 더불어 그 왕가는 온전해진 것이다. יִתְרֹ(예테르)¹²와 יִתְרוֹ(이트로/이드로, “나머지”)와 같은 이름들은 부정적으로 들리는데, 그 이름은 조상으로 인하여 줄어든 가족을 암시하고 있다.

3. 분만 과정과 인명

경험적으로 볼 때 난산(難産)은 물리적 장애발생을 가능하게 하는 원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¹³ 성경은 반복적으로 산모뿐 아니라 태아를 위협하는 분만 과정을 언급한다.¹⁴ 예를 들어, 탄식 같은 것을 발견할

-
- 10 열왕기하 25장 3절; 예레미야 40장 8절. ‘위로하는 여자’란 뜻으로 그 이름의 유형은 인명 ‘느헤미야’와 유사하다.
- 11 물론, שְׁלֹמֹה/שְׁלֹמֹה/שְׁלֹמֹה/שְׁלֹמֹה 등은 모두 같은 어근 *šlm*에서 파생하여 어휘들이며 아카드어에서 *šalmu*는 G-어간에서는 ‘손상되지 않은’, ‘건강한’을, D-어간에서는 ‘보존하다’, ‘완성하다’, ‘완전히 지불하다’, ‘화해하다’를 의미한다(AHW 1143-1145; 1013f). 이 어근과 관련된 신명 ‘셀렘’에 대한 논의는 본 소고의 범위를 벗어나며 또한 논지를 흐릴 수 있기에 본 소고에서 다루지 않는다.
- 12 출애굽기 4장 18절에 언급된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마소라에는 18a절에서 ‘예테르’로, 18b절에서는 ‘이트로’(출 3:1)로 각각 달리 기록된다(비교. 사 8:20; 왕상 2:5; 대상 2:17; 7:38).
- 13 임신중절, 낙태, 출산 중 과출혈과 산모병에 관한 자료들은 Bernd Janowski/Daniel Schwemer (ed.), *Texte zur Heilkunde*, TUAT.NF 5 (2021), 108-114을 참고하라.
- 14 창세기 35장 16-18절; 사무엘상 4장 19-20절; 역대상 4장 9절; 이사야 37장 3절; 66장 9절; 호세아 13장 13절; 비교. 창세기 3장 16절; 이사야 66장 7절. Axel Karenberg/

수 있다.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사 37:3, [직역] 아이들이 מְשִׁבֵּר (마쉬베르/자궁) 입구까지 도달하였으나, 낳을 힘이 없도다!). 분만정체 상태는 자궁 속에서 성장한 태아(임신 4개월 이상)의 골격 발견을 통해, 고고학적으로도 증빙된 바이다.¹⁵ 어떤 경우 14세 여성의 너무 협소한 산도(産道)로 인해 산모와 40주 된 태아의 사망이 유발되었다. 고고학적 고증에 따르면 대마초(cannabis sativa) 흡입이 산통 진정 뿐 아니라 촉진에 도움이 되었다. 하지만 이 14세 여성의 경우, 이런 흡입도 더 이상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던 것처럼 보인다.

그밖에 이스라엘 인명(人名)은 우리에게 생생한 그림을 스케치해 주고 있다. 출산 과정이 잘 마무리된 경우, שְׂמֵרָיָה (셰마르야/스마라, “야훼가 보존하셨다”)¹⁶와 같은 감사명이 나타난다.¹⁷ יְהוֹקָאֵל (예헤즈켈/에스켈, “하나님 그 아이를 강하게 하소서!”)과 같은 소원명은 ‘난산’을 되돌아보게 한다. 또한, פְּתַחְיָה (페타흐야/브다히야, “야훼가 자궁을 여셨다!”)¹⁸와 פֶּרֶיָּן (페레츠/베레스, “[회음부] 과일”)¹⁹와 같은 이름에도 소원명이 사용되었다. 의료기술이나 처방이 일정치 못했던 고대시대의 산모의 출산환경을 감안하면 긴시간 동안 진행되는 출산과정 중, 산소부족은 대뇌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신체적 장애나 정신적인 장애가 발생한다.²⁰ 물리적인 신체상 이상은 신경과 호르몬 분비계를 비정상적으로 작동시켜

Christian Leitz, *Heilkunde und Hochkultur*, Band 1 (Munster: Lit-Verlag, 2000), 124-127.

15 Ulrich Hübner, “Sterben überleben leben. Die Kinder und der Tod im alten Palästina”, C. Karrer-Grube (eds.), *Sprachen-Bilder-Klänge*. Festschrift für R. Bartelmus (AOAT 359; Fribourg; Ugarit-Verlag, 2009), 49-73.

16 역대상 12장 6절; 역대하 11장 19절; 에스라 10장 32, 41절.

17 Martin Noth, *윗글* (2010), 222ff.; Johann J. Stamm, *윗글* (1980), 59-80.

18 역대상 24장 16절; 에스라 10장 23절; 느헤미야 9장 5절; 11장 24절.

19 창세기 38장 29; 46장 12절; 여호수아 26장 20절 이하; 룻기 4장 12, 18절; 느헤미야 11장 4, 6절; 역대상 2장 4절; 4장 1절; 9장 4절; 27장 3절.

20 본 소고의 단락 5.1)을 참조.

근육 체계와 신체 동작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제한적인 맥락에서 신체적인 특이함은 불가피하게 정신적인 장애를 수반하는 때도 있다.

4. 고대 오리엔트의 장애 지칭 용어 고찰

1) 메소포타미아 텍스트: 릴루(*illu*)

고대 앗시리아 텍스트는 정신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출생과정의 어려움을 지나서) 살아남았다는 사실을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증언해 주고 있다. 메소포타미아의 「길가메시 서사시」는 이것을 말해준다. 길가메쉬는 우룩에 있었던 역사적 실존 인물(BC 4000-BC 3000)이다.²¹ 이 서사시의 서판은 크고 작은 썬기문자 파편 본문들(BC 3000-2000)로 구성된다. 그 서판들은 때로는 바벨론어나 앗시리아 방언으로, 때로는 더 오래된 수메르어로 기록되어 있다. 길가메쉬 서사시는 메소포타미아 이외에 나라들뿐만 아니라, 가나안에서도 널리 유포되었다.

BC 7세기 — 이스라엘에서는 선지자 예레미야가 태어났던 시기 — 「길가메쉬 서사시」의 한 파편 본문은 대략 열 구절로 인상적인 한 인물을 기술하고 있다.²² 묘사된 한 인물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질 낮은 음식을 받았는데, 그는 맥주 찌꺼기와 떨어진 곡식을 먹었다. 그는 그 사

21 Wolfgang Zwickel(eds.), *Herders Neuer Bibelatlas* (Darmstadt: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2013), 77.

22 Wolfgang Rölling(ed.), *Das Gilgamesch-Epos* (Stuttgart: Verlag Philipp Reclam, 2009), 105; *TUAT* III, 726. 뢰링(W. Rölling)은 다음과 같이 번역한다(줄 272-278; 불확실한 것은 이탤릭체로 인쇄되어 있다). “한 어리석은 자(바보)에게 달콤한 크림 대신 맥주 효모가 주어졌다. 케이크와 빵 대신에 쓰레기(Kehricht)나 겨(Kleie), 그는 외투 대신에 갈대 치마를 입고 있고, 허리끈 대신 새끼줄로 동이고 있었다. (그는) 이렇게 (하고 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조연해주는 이가 아무도 없고, 그 어떤 훌륭한 충고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길가메쉬! 나는 왕의 의무라도 되듯 나는 너를 염려하고 있다.”

람에 외에는 아무도 입지 않을 거친 첫 조각옷을 입고, 혁대 대신에 평범한 끈을 사용했다. 특권을 누리던 길가메쉬와는 달리 그 사람에게는 어떤 조연자도 없었고 그 역시 다른 사람에게 조언을 해 줄 수 없었다.

이 보도는 고대 오리엔트의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불품없는 삶을 상상하며, 동일한 운명을 맞이하고 있을 전형적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다. 중요한 사실 중 하나는 영양이 부족한 식물이 그에게 ‘주어졌다’²³는 것이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처럼 직접 자기 손으로 먹을 것을 조달할 수 없었다.²⁴ 그는 구걸해서 살았는지 아니면 다른 친척들이 그를 부양했을 것이다. 그것도 아니라면 자기 일에 대한 합당한 급료를 받지 못할 만큼 무력했을 것이다.

분명 이 썩기 문헌은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이 아주 위험 했을 어린 시절을 넘어서까지 생존할 수 있었다는 것을 증빙해준다. 길가메쉬가 묘사한 불품없는 삶이 그들이 처해졌던 전형적인 운명²⁵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그들의 생존은 충분히 가능했다는 것을 반증한다.

이 본문이 알려주는 또 다른 정보는 이런 사람을 앗시리아 단어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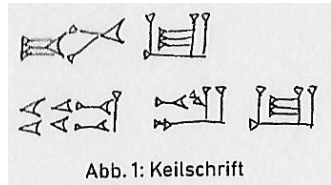
23 여기에 사용된 동사 아카드어 *nadānu*는 빈번한 히브리어 어휘 נָטַן(*nātan*)과 일치한다 (HALATI, 692).

24 Stefan M. Maul, *Das Gilgamesch-Epos* (München: C. H. Beck, 2008)의 번역과는 차이가 있다. 마울은 이 세부 구절에서 *lillu*를 “보통 사람”으로 이해하고 싶어 한다. 비록 유사 의미 단어 *saklu*(SAA X 28,3)가 부분적으로 그렇게 사용된다 하더라도 그의 제안에 전 문가들은 회의적이다. Wilfred G. Lambert, *Babylonian Wisdom Literature* (Winona Lake, Idiana: Eisenbrauns, 1996), 78. 램버트의 바벨론 주석은 *illu*를 “결단 능력이 없는” 것으로 해석한다. 하지만, *lillu*가 정신병자를 말할 수도 있다.

25 또 다른 텍스트는 이를 입증해 주고 있다. 장애는 특정 장소의 징조로 해석된다. 수많은 장애 종류 중, 같은 말인 *lillu*가 등장한다. Sally M. Freedman, *If a City Is Set on a Height*, Volume 1, The Akkadian Omen Series “Šumma Alu Ina Mēlé Šakin”, Tablets 1-21 (Philadelphia: Occasional Publication of the Samuel Noah Kramer Fund 17, 1998), Tafel I, 줄 87-88; Edgar Kellenberger, *Der Schutz der Einfältigen. Menschen mit einer geistigen Behinderung in der Bibel und in weiteren Quellen* (Zürich: Theol. Verlag, 2011), 19, 각주 12번 재인용.

lillu(릴루)라고 지칭한다는 것이다. 릴루는 “얼간이, 백치, 멍텅구리”²⁶로 번역된다. 지금까지 보존된 수많은 켈트 문자 문헌 정보에서도 ‘릴루’가 나타나며, 여성형인 ‘릴라투’(lillatu)는 훨씬 더 많이 발견된다. 이런 명칭 중, 거의 2/3는 — 유의어를 함께 생각한다면 — 부차적인 정보를 유추하게 한다. 일부 증거자료에서는 이런 명칭들은 정신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다룬다. 그리하여 릴루가 당시 사람들에게 이중적 의미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일반인도 어떤 구체적인 순간에는 ‘멍청한 행태’를 하는 사람으로 말해지곤 한다. BC 2세기 초 한 편지에서, “나는 멍청한 일을 하여 그 Šunšija에게 비밀을 믿고 부탁했습니다.”²⁷라고 한다. 즉, 이런 종류의 언어 사용은 문화를 망라한 공통적인 현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오컨데, 장애인 릴루는 저(低)품질의 음식을 받고 있기에, 그는 맥주 침전물과 곡물 겨로 만족해야 했다. 저품질 식물은 일정 부분적으로 강제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식량자원이 충분치



28

Abb. 1: Keilschrift

않았던 시절 모든 사람에게 충분한 음식과 의복과 돌봄이 제공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일반인보다는 훨씬 많은 주의와 시간이 필요한 장애를 가진 아기들은 식량자원의 부족으로 인해, 다른 이들보다는 쉽게 불행한 운명에 빠지게 될 경우가 더 허다하였다는 것을 참작해야

26 AHw I, 553; 본 조텐(Wolfram von Soden)은 *lillu*를 “얼간이, 백치, 멍텅구리”(Tölpel, Idiot, Dummkopf)로 번역하고 있다. ‘릴루’는 독일어 “lallen”(‘뜻 없이 웅알거리며 말하다’)처럼, 의성어(擬聲語)였을 것이다. 그렇다면, *lillu*는 원래는 “Laller”(‘웅알거리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27 Edgar Kellenberger, *윗글* (2011), 20, 각주 15.

28 Edgar Kellenberger, *윗글* (2011), 20. *lillu*는 *lil-lu*, 또는 *li-il-lu*로 음역할 수도 있다.

할 것이다.²⁹ 궁핍이 극심할 경우, 식구 한 사람의 죽음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부담을 덜어주는 방편이 되었을 것이다. 경제 생산에 있어, 최소한 기여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처지는 특별히 위태로웠다는 것이다. 고고학적인 발견물은 장애에도 불구하고, 그런 개인들이 살아남았다는 것을 보여준다.³⁰ 생존은 본인의 강인한 생존 의지일 수도 있고, 또는 지파 일원들이나 가족의 최선을 다해 수발한 덕택일 수도 있다. 또는, 양자 모두일 수 있다.

2) 성경 텍스트 속의 궤적: *kēsīl*

*lillu*가 이중적인 의미에서 — ‘우매한 자’와 동시에 ‘정신지체 장애인’ — 사용된 실례는 구약성경 속 장애 관련된 구절에 대한 탐색의 폭을 한층 더 넓혀 준다. 구약성경에서는 ‘우매한 자들’과 ‘우매’³¹에 대한 많은 언급이 있다. 무엇보다도, 잠언에는 ‘지혜’를 일깨우고, ‘우매’를 경계하는 권고와 격언이 수록되어 있다. 물론, 그런 진술들은 지혜를 추구하고 미련한 행동을 피하는 것에 관심이 있던 소위 표준인들을 수신자한다. 그렇지만, 우매를 이중적으로 이해하는 구절도 있다.

29 한 소두증 아기의 두개골 조사는 영양실조 흔적을 반증해 주고 있다. Joachim Wahl/ Mostefa Kokabi, *Das römische Graäberfeld von Stettfeld, 1 Osteologische Untersuchung der Knochenreste aus dem Graeberfeld* (Forschungen und Berichte zur Vor-und Frühgeschichte in Baden-Wuerttemberg 29; Stuttgart: Theiss 1988), 80.

30 D. Gourevitch, “Au temps des lois Julia et Papia Poppaea, la naissance d’un enfant handicapé est-elle une affaire publique ou privée?”, *Kiéma* 23 (1988), 459-473; Edgar Kellenberger, *윗글* (2011), 87, 각주 58. 주후 3세기 로마의 법률학자 파울루스(Paulus)는 음식 거부를 이유로 아이를 방치하는 것은 질식이나 유기와 같은 살인으로 평가한다 (Corpus Juris Civilis, Digest. XXV 3,4). - 초기 로마 황제 시절, 신체 마비나 귀머슴에도 불구하고, 길러진 아이들의 일대기가 존재한다.

31 「민중국어사전」에서는 ‘어리석고 사리에 어두움’을 우매(愚昧)라고 한다.

יֵלֵךְ כְּסִיל לְתוֹנָה לוֹ וְלֹא-יִשְׁמַח אָבִי נָבֹל: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버지는 낙이 없느니라 ([개정] 잠 17:21; 비교, 17:25)

여기에서 “낳다”를 주목해 볼 수 있다. 이 잠언은 젊은이들을 다방면으로 양육하고자 하는 소위 지혜문학에 속한다. 양육에는 품성 형성도 포함된다. 양육 노력이 늘 성공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본질은 비록 성공적이지 않은 양육일지라도 그 출생에 대해 숨기지 않고 말하고 있다. 21a절은 한 아이의 태생적인 환경이 부모의 근심과 낙을 앗아 가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그렇다면 21절은 교육부실을 의미하기보다는 — 지금까지 성경신학에서 간과되었던 — 정신적인 장애에 관한 실제 진술일 수 있다. 이런 추론은 단지 추측성 학문 가설이 되지 않은 히브리어 언어 특색을 살펴볼 때 분명해진다. 21a절은 의미와 문맥 기능적 차원에서 릴루와 유비적인 관계의 어휘 כְּסִיל (커실)이 나타난다.³²

히브리어에서 “우매한” 사람으로 분류 가능한 주요 어휘들 중 하나가 כְּסִיל (커실)이다. 커실은 릴루의 경우와 같이, 상황에 따라 표준인의 어리석음을 뜻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

כִּי יִרְאֶה חֲכָמִים יְמוֹתָיו יַחַד כְּסִיל וְבָעַר יֵאבְדוּ
וְעֵזְבוּ לְאַחֲרֵים חֵילִם: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 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라 (시 49:10
[MT 49:11])

32 M. Soebo, “כְּסִיל” *K’sil Tor*, *THAT I* (1971), 836-838. 히브리 본문에서 형용사와 명사로 사용하는 이 어휘의 어원적인 뜻은 “두껍다”, “기름지다”(=살찌다)이다. 신체적으로 살점을 뜻한다는 의미에서 ‘허리’(כְּסִיל I)라는 뜻이 파생된다. 이 어휘는 긍정적으로는 신뢰(כְּסִיל II)를, 부정적으로는 우매함(כְּסִיל II)을 말한다. 시편과 잠언을 제외하고 이 어휘는 잠언에만 70회 사용된다.

마소라 어절 분리(*mūnāh-’atnāh* 단위)에 따르면, 11a절에서 ‘어리석은 자’(*kēsīl*)³³와 ‘무지한 자’(*ba’ar*)는 한 쌍으로 함께 언급되고 있다. 그리고 이 ‘어리석고 무지한 자’는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사랑하는 자”(6절[MT 7절])로 이해되고 있다. 또한, 11b절에는 이들이 자산을 남겨 두고 떠난다고 한다. 따라서, 여기에서 ‘커실’(*kēsīl*)은 일반인의 무분별함과 우매함을 의미한다. 그 밖에, ‘커실’과 ‘바알’이 한 구절에 동시에 등장하는 용례들로는 시편 92:6(7); 94:8(9)를 들 수 있다.

כִּסִּיל(커실)의 세 자음 어근은 카프-싸멕-라메드(*K-S-L*)이다. 이 어근에서 파생된 ‘케셀’(*כֶּסֶל*)은 때에 따라, ‘멍(청)함’(전 7:25; *THATI*, 836)과 ‘의뢰’(시 78:7; 욥 8:14; 31:24)을 뜻하고 있다(*HALATI*, 466). 전자(‘멍[청]함’)는 정신지체 장애인을, 후자(‘의뢰’)는 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심정적인 특성을 묘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성경에서 어휘 활용은 그 의미를 하나님을 향한 일반인의 순전하고 올바른 태도로 전이시킨다. 인물로서 커실³⁴은 지혜있는 자와는 달리 침묵할 줄 모르며, 오히려 그의 입은 그의 우매함(잠 12:23; 13:16; 14:7, 33; 15:2, 14; 18:2; 29:11, 20)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과 다툼이 일상이다. 우매함 그 자체가 그에게는 멸망의 덧이다(잠 18:6f; 비교. 10:18). 그는 무용할 뿐 아니라(잠 26:6; 비교. 26:10; 전 10:15b) 창피스런 행동을 즐겨위하며(잠 10:23; 13:19), 험담을 퍼트리고(잠 10:18), 이웃하는 사람들에게 위협하다(잠 13:20; 17:12). 이런 כִּסִּיל(커실)의 행실은 일반인들의 눈에는 비정상 범주에 속한 것이다.

33 히브리어 כִּסִּיל(커실)에 해당되는 LXX의 용어는 ‘아프론’(ἄφρων)이다. ‘아프론’(ἄφρων, ov, gen. ovos, *fool; foolish, senseless; ignorant, unlearned*)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40절, 고린도후서 11장 16, 19절, 베드로전서 2장 15절에서 사용되고 있다(*UBS*, 1046; *GING*, 31). VUL는 커실을 ‘인시피엔스’(insipiens, 무분별한 자)로 옮겨 쓰고 있다.

34 M. Soebo, 836-838.

세 자음 어근 카프-싸멕-라메드(*K-S-L*) 중, 첫 번째 두 자음의 자리를 바꾸면 어근은 싸멕-카프-라메드(*S-K-L*)가 되는데, 여기에 파생된 어휘는 לָכֹחַ(싸칼/우매한 자)이다(렘 4:22; 5:21; 전 2:19; HALAT I, 713). 이에 상응하는 아카드어는 *saklu*(삭클루/어리석은)로 이 두 단어는 공동-셈어 동일 어근에 기원하고 있다. 히브리어에서 발생하는 이례적 현상의 원인은 언어학적으로 아직까지도 명확히 설명할 수는 없다. 다만 추정해보기로는, 장애(청각장애, 뇌성마비 등)를 통해 야기된 언어장애를 문자적으로 상연시키기 위해³⁵, 히브리어가 카프-싸멕-라메드(*K-S-L*)에서 카프(*K*)와 싸멕(*S*)의 인위적인 자리바꿈³⁶을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스위스 독일어에서도 이와 비견될 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사람들은 ‘귀먹고 말 못하는’(taubstumm) 대신에 자주 ‘먼지 날리며 말 못하는’(staub-dumm)이라고 바꾸어 말한다.³⁷ 그리고 이를 통해, 미숙한 발음 뿐 아니라 엄청난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의 어둔함을 표현하였다.

정신적 장애를 빗대거나 장애를 지칭하는 한글 어휘로는 ‘어리석다’, ‘우매하다’, ‘바보’, ‘천치’, ‘백치’, ‘멍청이’, ‘얼간이’, ‘등신’, ‘미치광이’ 등이 있다. 이 모든 용어와 관련된 히브리어 용어의 일대일 대응을 찾는 것은 본 소고의 목적도 아니며, 또한 오랜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그럼에도 한국어에서도 실제 지능이 부족한 사람을 일반인들의 행태와

35 내용적 의미론을 어형적 형태로 변환하여 표현하는 경우는 히브리어의 문장론이나 구문론에서 전혀 낯선 것은 아니다. 이것은 히브리어의 케티브와 케레에서 일부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비교, 전 10:3).

36 어근 카프-싸멕-라메드(*K-S-L*)는 히브리어뿐 아니라 친족 셈어에서도 다른 의미를 더 가지고 있다(비교, 요부(腰部)라는 의미의 히브리어 케셀(*kesel*)과 아카드어(*kislu*); HALAT I, 466). 이와 비슷한 자음 자리바꿈이 여호수아의 무덤이 안치된 고장명, טִמְנַת תִּמְנָת(Timnat-cheres)와 팀낫-세라(תִּמְנַת־שֵׁרָא)에서도 나타난다(삿 2:9; 수 24:30). 헤레쓰(태양(신))가 이방적이라는 의혹이 있기에 세라흐(냄새 풍기는)란 말로 대체되었을 것이다.

37 Edgar Kellenberger, *윗글* (2011), 104.

빛대어 충분히 사용될 수 있음이 확인된다.

3) 어의론적 궤적 이해와 결론적 고찰

구약성경의 법전 본문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조롱이나 경시에 대해 분명하게 저항한다(레 19:14; 신 27:18; 비교. 잠 28:9). 반면, 시편이나 지혜자들의 가르침 속에서 장애는 사회적 수용 작업의 한 일면을 보여준다(예. 잠 17:21). 즉, 일반인들의 그릇된 습성이나 행태가 — 장애에 빛대어서 — 치명적 결함이 내재된 생활임을 말하며 경고하거나 훈계한다(잠 24:10). 잠언의 실제적이고 지혜적인 목적을 고려한다면 신체적 이상이나 병변, 정신적 장애로 인한 행동이나 그 인상착의로 자아내는 유비적 장면 묘사는 장애가 동 시대인들의 일상 생활과 전혀 동떨어진 것이 아니었음을 알려준다. 분명한 것은 일반인들과 다른 이들은 분명히 구약시대에도 생존이 가능하였으며 메소포타미아의 텍스트를 통해 보았을 때 최적의 경우 어른까지도 생존하였다.

5. 출생 이후 장애아의 생존환경

고대 문헌은 신체적 장애뿐 아니라 정신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것은 입증한다. 데이르 엘-메디네(Deir el-Medineh)의 이집트 중류층에 속한 4살 소년은 자기 신분에 걸맞게 매장되어 있었다.³⁸ 50세의 뇌성마비 여인의 유골도 이집트에서 발견되었다. 그녀는 BC 2000년경에 뇌성마비로 신체적 변형을 지닌 채 살았

38 윗글, 61, 각주 18번. 나사렛 지방의 구석기시대 3-4세 어린이(V. Delattre / R. Salem)와 약 30점의 선사시대 유물들.

고, 상류층 일원으로서 신분에 걸맞게 매장되었다.³⁹ 그녀가 게헤세트(Geheset/가젤양)로 불렸다는 것이 눈에 띈다. 그녀의 부모는 이 독특한 이름을 통해, 출생 때 운동장애가 인지되어 낫기를 소원하거나 마술적인 방법으로 이를 떨쳐버리기를 바랬을 것이다.

장애아 출생은 한 가족의 살림을 위태롭게 할 만큼의 시간과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했다. 농경이 주이던 사회에서 이러한 시간 집약적인 돌봄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장애아가 살아남은 경우도 있겠지만 가뭄이나 경제적인 압박이 극심하던 시기에는 어쩔 수 없는 대안(유아 살해, 또는 영아유기)을 택해야 하는 때도 있었다.

1) 메소포타미아의 유아살해

유아 살해의 경우, 메소포타미아의 「의료진단학 편람」⁴⁰이 전해 주고 있다. 유아 살해의 관습은 기형적 출생(*izbu*)이 사회에 화를 미치는 징조로 이해하고, 우려되는 재앙을 사전에 막기 위해 소위 남부르비(*namburbi*) 의식을 거행한다. 이 복잡하고 소품이 많은 의식은 기형적으로 태어난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을 강물에 내다버려 폐기처분을 하는 과정을 보여준다.⁴¹ 남부르비의 전체 절차는 유복한 상류층만 실행할 수 있을 정도로 비용이 많이 드는 제의였다.

계속해서 「진단학 편람」은 두 가지 중한 경우를 언급하고 있다. 신생아가 “울지도 않고 소리치지도 않고 신체를 동작할 힘도 없고, 축 처

39 Daniel Polz(eds.), *Für die Ewigkeit geschaffen. Die Särge des Imeni und der Geheset* (Mainz: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2007), 104-106; 윗글, 63, 각주 19 재인용.

40 *Texte zur Heilkunde*, TUAT.NF V (2010), 8-30. 이 텍스트는 대략 BC 1000년경 고대 천승들을 수집 편찬한 것이다.

41 Stefan M. Maul, *Zukunftsbewältigung. Eine Untersuchung altorientalischen Denkens anhand der babylonisch-assyrischen Löserituale (namburbi)* (Mainz: Von Zabern, 1994), 336, 46 번째 줄.

져서 누워만 있다면, 그 가정[문자적으로: ‘아버의 집’]이 붕괴되지 않도록 그 아기를 산 채로 물에 던질 것”⁴²을 권한다. 이와 유사한 진술이 경련성 마비가 있던 (대뇌피질 손상된) 아이들에 대한 조치에도 발견된다. 이들은 “울고, 뒤틀려지고 지속적으로 경직된다”. 그 아이는 “사산한 경우와 같이 매장해야 한다.”⁴³ 분명, 이 배경에는 엄청난 절망이 서려 있다. 그래서 신생아와 그 죽은 아이의 “사자의 영”도 함께 소거하도록 하는 비상한 살인 방법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우려되었던 가정 붕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쉽게 알 수 있다. 그것은 가정 갈기갈기 찢어놓도록 위협하는 과중한 수발과 부양이었을 것이다.

2) 유아 유기의 가능성

구약성경 중에 유아 유기를 이야기의 소재로 하는 본문이 있다. 물론, 유아 유기 암시적인 여러 본문과 함께⁴⁴, 세 본문이 유기의 고유한 정황을 보여준다. 첫째 본문은 영아일 때 바구니에 담겨 나일강에 유기된 모세 이야기이다. 파라오의 명령을 피하여 아기 모세는 비보호 상태로 그곳에 버려졌지만, 죽도록 버려진 것은 아니었다(출 1:22-2:10). 고대 오리엔트 문헌에는 바구니 속에 담긴 아기 모세 유기와 비슷한 이야기 전승에 또 있다. 그것은 독신인 어머니가 젖먹이를 바구니에 담아 유기한 앗시리아 왕 사르곤 1세(Sargon I)의 설화이다. 이 설화는 모세 이야기와 닮은 면이 적지 않다. 두 번째 본문은 이미 자라난 아이를 유기하거나, 내쫓는 장면을 그려주고 있다(창 21:9-21). 사라의 남편 아브라함

42 Nils P. Heeßel, *Babylonisch-Assyrische Diagnostik* (AOAT 43; Münster; Ugarit Verlag, 2000), 325, 332, 335. 정조와 그 해석에 관하여, Wolfram von Soden, “Die 2. Tafel der Unterserie Šumma Ea liballit-ka von alamdimmú”, *ZA* 71 (1981), 109-121; 114.

43 Nils P. Heeßel, *윗글* (2000), 328-329; 324.

44 시편 22장 10절; 27장 10절; 이사야 49장 15절; 예레미야 14장 16절.

은 결혼생활의 평화를 위하여 자신의 첫아들 이스마엘을 그의 어머니, 몸종 하갈과 함께 광야로 떠나 보낸다. 유기를 언급하는 세 번째 구약성경 본문은 에스겔서인데, 에스겔은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관계를 통상적이지 않는 그림으로 설명한다(겔 16). 하나님은 길 가던 도중 허허 벌판에서 이제 막 유기된 찢먹이 여자 아기를 발견한다. 그녀는 발가숭이였고, 버둥거리며 아직 피를 흘리는 채 ‘내 버려져’있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주어서 길러주며, 그녀의 양부가 되었다.

이 세 본문은 영아유기가 현실이었으며, 기대할 만한 옵션이 전혀 없었을 때는 그러하였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위기 상황에서 이런 참담한 일은 불가피할 수 있다. 세 본문에서 하나님의 구원은 항상 그러한 위급상황에서 넘어서도록 인도하셨다. — 그분의 도움이 없었다면 유기된 아이들은 살아남지 못했다.

유아 살해는 십중팔구 그 아기와 어머니(또는 가족)와의 내적인 관계가 깊어지기 전인 출산 후 몇 날에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반면, 유기는 어머니가 스스로 그 아이가 남들이 발견하고 길러지기를 바라는 희망에서 이루어졌다.⁴⁵ 유기는 경제적인 위기 상황 중이거나 아이의 허약성이 시간이 지남의 따라 발견되는 경우 행해졌다. 그러한 점에서 (시간이 지나서야) 알아 볼 수 있는 정신적인 장애가 유기로 이어질 수 있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45 Edgar Kellenberger, *윇글* (2011), 82, 각주 70.

3) 유기 중, 입양 가능성

유아 유기에의 결과는 다양하였다.⁴⁶ 한편, 유기는 아이의 이른 죽음을 초래하지만, 다른 한편, 상황에 따라 아이의 생존 역시도 가능하다. 유기된 아이는 쉽게 들짐승의 먹이가 될 소지가 있었다. 예를 들면, BC 2세기 초기 도시국가 마리(Mari) 왕에게 보낸 관리들의 한 보고서에는 수개월 된 젓먹이 아기가 머리와 하체가 없는 채, 하수가에서 발견되었다고 한다. 관리들은 그 성별이 무엇인지 확정할 수 없었다고 한다.⁴⁷ 아마도, 그 아이는 들짐승에게 먹혔을 것이다.⁴⁸ 그 발견 장소가 운하에서 가까운 지점인 것으로 미루어 보아, 이 사건은 유기를 가르키고 있다. 하수 근처는 유기된 아이가 제시간에 발견되어 구출되기를 바라는 한 어미의 희망에 부합된 곳으로 유기하기에 적합한 장소로 선호되었기 때문이다.

대체로 유기된 아기는 죽게 되었다. 그럼에도, 경우에 따라 유기된 아이는 관심있던(즉, 입양을 원하던) 사람들 덕택에 살아남았다. 신 앗시리아 시대나 신 바벨로니아 시대에 이나-피-칼비-이리히(*Ina-pi-kalbi-irich*/"개의 입에서 그는 구출되었다")⁴⁹와 같은 인명들이 여러 차례 문헌에 언급된다. 이런 이름은 조상명이 없이 기록된 것이 특징적으로, 그들은 대체로 노예들, 성전에 의존된 사람이나 농경 인력들이었다. 그럼에도 입양의 결실로, 고귀한 도시가계로 신분 상승이 가능했음을 보여준

46 윗글, 59-60.

47 윗글, 83. 성별이 그 관리에게는 특별히 언급할 만한 것이었던 것 같다.

48 열왕기상 21장 23-24절은 사람을 공격하고 심지어 먹어 치우는 개들이 있었음을 말하고 있다. 그 현상은 문화권들을 넘나들고 있다(비교. 시 22:17; 68:24; 사 56:11; 눅 16:21).

49 Johann J. Stamm, *Die akkadische Namengebung* (MVÄG 44; Leipzig: J. C. Hinrichs, 1939=1968), 320.

다.⁵⁰ 신 바벨로니아 시대에, 수라이아(*Sulāia*)와 수카이아(*Suqāia* “거리 출신의 남녀 사람”)로 명명되는 인물들 나타난다. 수라이아(*Sulāia*)로 이름한 사람의 경우⁵¹ — 다른 6명과는 달리, 특수한 경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 왕립 도서관에서 일하였던 교양층이었다. 하리차누(*Hariṣānu* “도시 묘지로 출신의 사람”)⁵²의 경우, 입양되기 전 버려진 장소를 말하고 있다. 그 밖에 문서 기록으로 남아 있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었으리라 추측할 수 있다.⁵³

이스라엘에는 지파적 네트워크가 있었다. 이스라엘의 대가족은 유기 방지에 충분한 도움이 되었고, 가족 영역 밖에서의 입양을 통한 문제 해소는 그리 긴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가족들이 경증 정신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노동력을 매도하거나 도급한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들은 농경이나 부양일로 새 고용주를 — 메소포타미아와 유사한 전제 조건들로 — 도와야 했다. 신체적, 정신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입양되었는지에 대해 성경 본문은 침묵한다. 최소한 정신적인 장애의 경우 손으로 일할 수 있고 온순한 사람이었다면 누구든지 노예나 장래 며느리, 그리고 노년의 봉양인으로 적합할 수 있었고, 그러하기에 또한 입양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다. 물론 시편의 질병 시들로 볼 때 부정한 자로 여겨 공동체 외곽으로 몰려났거나 공동체 내에 조롱받을 가능성도 있다(참조. 시편 22:9-10, 14-17). 다만 성경 본문은 입양과 축출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50 Cornelia Wunsch, “Findelkinder und Adoption nach neubabylonischen Quellen”, *AfO* 50 (2003/2004), 182-183.

51 Edgar Kellenberger, *윗글* (2011), 111, 각주 155.

52 윗글, 90.

53 Heather D. Baker (ed.), *Prosopography of the Neo-Assyrian Empire* 3/1 (PNA; Wino Lake: Eisenbrauns, 2002), 1065, 1068. 서 셈어군(群)에서 주운 아이(Findling)라는 이름은 *Sakabu*, *Sakahā*, *Sakūhu*인데, 이 종류의 이름을 가진 사람은 총 5명이나 된다.

6. 대안적인 생존터전: 성전과 성소

사람을 성소에 헌상하는 관습은 수천 년간 — 특별히 로마 가톨릭 교회에 오랫동안 지속된 — 초문화적인 현상이다. 구약성경의 헌상 기록의 한 예가 사무엘이다. 한나는 사무엘 출산 전, 오랫동안 기다렸던 아기를 야훼께 종신 헌상할 것을 서원한다. 사무엘이 태어난 후, 한나는 단유(약 3년 정도)를 마치고, 아이를 실로 성소의 제사장 엘리에게 양도한다(삼상 1). 헌상 이후에도, 어머니와 아이 사이의 접촉이 단절된 것은 아니었다. 엘리의 가족이 매해 실로로 갔기 때문에, 가족은 정기적으로 사무엘을 만났고 한나는 사무엘에게 필요한 새 옷을 건넨다(삼상 2:19). 그리고 사무엘은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봉사하다(삼상 2:18).

사무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헌상하다’(קָדַשׁ, 삼상 1:11)와 동일한 어근의 단어가 포로기에 급격하게 나타난다. 그들은 “느디님 사람들”로 불려진다(스 2:43). 복수 명사 느티님(נְטִינִים) 그룹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헌상되었던’⁵⁴ 사람들을 지칭하는 개념이 숨어있다(단수형 נְטִינָא(나틴), HALATI, 691). 느티님의 많은 후손들은 바벨론 유배지에서 이전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이주했던(스 2:43-54=느 7:46-56) 귀환자들 가족의 명단 중에 나타난다. 느티님의 더 정확한 기능에 대한 성경 자료의 언급은 희박하다.⁵⁵ 고대 역본(LXX, Vulgata)은 대부분 이들을 ‘성전 봉사자’(또는, 성전 노예)로 지칭한다. 느티님의 한 부류는 그 혈통이 비(非) 이스라엘계임을 성경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원래 가나안인들이 성전 봉사 직무인 “나무패기는 자와 물 깎는 자”(수 9:21-27; 비교. 신 29:10)의 역할을 감당하였고, 이 직무는 이후 시대에까지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비교. 삼

54 קָדַשׁ: pl. נְטִינִים: ‘those who are donated’, temple-slaves, bondsmen (Holladay, 249)

55 비교. 에스라 7장 24절; 8장 18, 20절; 느헤미야 3장 26, 31절; 느헤미야 11장 3, 21절; 역대상 9장 2절.

하 21). 포로기 후기, 귀환공동체의 성전 봉사자 중 일부는 이들과의 연속선상에 있을 것이다.

느티님으로 성전에 헌상된 이들(스 2:43-54)의 인명록에는 장애를 뜻하는 이름들이 평균 이상으로 많다.⁵⁶ 이들은 קִירָקִי(케로시/게로스, ‘굽은 사람’)⁵⁷, גַּחֲרִי(가하르/가할, ‘정신이 박약한 사람’), פִּסְפִּסָּה(파세아흐/바세아, ‘절뚝거리는 사람’), אֲחֻזָּה(하후파/하그바, ‘굽추인 사람’), אֲחֻזָּה(하르와/하르사, ‘귀먹고 말 못하는 사람’) 등이다(스 2:44, 47, 49, 51, 52). 이스라엘의 인명 중, 장애를 지칭하는 예가 그리 흔치 않다는 점에서 이 자료의 중요성은 가중된다. 게다가, 인명록을 통해 살펴 볼 때, 느티님 출신 지파가 다른 귀환한 지파들⁵⁸보다 훨씬 빈약하다. 장애인이었던 이들(또는 가문)이 부분적으로 계승되었기는 하나, 이들은 장애로 인하여 경제적 형편이 그리 좋지 않았고 더 이른 시기에 죽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결과, 그들의 후손의 수는 근근히 남게 된다.

신전 현상은 포로기 전후 메소포타미아 문명뿐 아니라 중세에도 존재하였던, 문화권을 망라하는 현상이었음을 다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 췌기 문헌에서의 신전현상

BC 3000년 이후 메소포타미아 췌기문자 텍스트는 신전 현상을 언

56 김선중, “에스라-느헤미야 연구 서설”, 『구약논단』 73집(2019년 9월 30일), 49-73. 김선중은 사마리아 종교, 페르시아 시대의 유대교와 헬레니즘 시대의 유대교에 대한 연구와 함께 에스라-느헤미야를 읽어야 함을 말하고 있다.

57 그 밖에, 에스라 7장 47절; 느헤미야 7장 47절; 역대상 9장 2. HAE I, 383; Ostrakon 18, Arad(6):18에서도 이를 증빙한다. 포로기 전의 아라드(Arad)의 도편 기록은 포로기 전 BC 6세기 초 가족명 게로시를 언급한다. 바인베르크(Weinberg)는 이들이 포로기 전 왕정 업무에 종사했던 장인들로 추정하고 있다.

58 Wilhelm Rudolph, *Esra und Nehemia*, Handbuch zum Alten Testament (HAT 20; Tübingen: Mohr Siebeck, 1949), 23.

급하고 있다. 아주 초기 문헌 속에, 특별히 여자와 아이들을 다루고 있다. 그들은 성전 재산에 속한 직조(織造) 작업장에서 일하고, 그 대가로 ‘음식과 하숙’을 하였다. 토지와 동물, 사람 헌상은 BC 2000년대와 BC 1000년 대에도 넓게 유포되었다. 헌상된 이들 중, 신전에서 도망한 사람들도 언급된다.⁵⁹ 특히, 부유한 사람은 그들의 노예를 — 작업력이 미진할 경우 — 헌상하는 예도 있었다. 또한 부유한 사람은 유언장을 써서 죽은 이후에 자기 노예를 성전에 증여(贈與)하기도 하였다.⁶⁰ 가난한 사람들은 가족 중 일원을 신전에 바쳤는데, 이 헌상이 다소 경제적인 이유로 강제되었다는 것은 개별 문서들을 통해 볼 때 알 수 있다.⁶¹ 혼외정사로 태어난 아이들(Bastard)이나 고아가 된 아이들뿐만 아니라, 특별히 가족 중 장애를 지닌 일원이 성전에 양도되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신전은 그런 헌상을 거절할 수 없었고, 또한 동시에 신전은 맡겨진 사람들의 안녕을 충분히 돌보는데 과한 요구를 부담한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다.

2) 중세 수도원들의 헌상

중세 그리스도교 수도원의 헌상은 아주 구체적인 광경을 보여준다.⁶² 헌상된 아이들은 서방 수도원에서는 보통의 수도사나 수녀가 되

59 Edgar Kellenberger, *윗글* (2011), 113, 각주 161.

60 Cornelia Wunsch, *윗글* (2003/2004), 209. 필자는 Kiel 대학에서 고교회사 공부를 위해 루마니아의 교회와 수도원들을 방문한 적이 있다. 그곳에서 주방, 행정, 그리고 기타 여러 분야에서 종사하는 사람 중 대다수는 여생의 마지막을 종신 수도사로 서원하여 헌상하고 있었다.

61 Edgar Kellenberger, *윗글* (2011), 113, 각주 163. 나보니두스 왕 시절 기근의 때 한 과부가 여신 에렉(Erech)에게 작은 아들 두 명을 종신토록 헌상하였다. 문화적으로는 좀 더 떨어진 예로는 그리스 신화에서 아폴로(Apollo)와 델피 성소에서 자라난 이온(Ion)이 있다. 어머니 크로이사(Kreusa)는 아들 이온이 죽을 운명에 놓이게 되자 그 아들을 신전에 헌상한다.

62 Mayke de Jong, *In Samuel's Image: Child Oblation in the Early Medieval West* (Leiden: E. J.

었다. 수도원 후진은 현상된 이들을 통해 보충되었다. 그중에, 영국출신의 사제로 독일에 파송된 선교사 보니파티우스와 토마스 아퀴나스와 같은 교리가 처럼, 유명한 — 후에는 성자로 공포된 — 사람들도 있다. 당시 형편의 아이들은 부모의 결정에 대해 그 어떤 의의(疑義)도 제기할 수 없었고, 부모들은 부권에 의탁하여 아이들이 어릴 때, 수도원에 헌상하기로 결정했었다. 누르시아 베네딕트의 「수도원 규칙서」(AD 6세기)의 자명한 규정⁶³은 — 점차 반대 소리에도 커저감에도 — 중세 전체 동안, 공식적으로 폐기되지는 않았다. 하나님을 위한 공로가 있는 평생 제물이라는 사상이 이 규칙서의 토대를 이룬다. 현상된 자녀들은 ‘오블라띠’들로 명명되었고 그 오블라띠들은 중세 그리스도교의 엘리트 생성에 본질적 공헌한다.

현상된 아이 중 항상 수도원의 보호(와 그곳에 교육 가능성)에 위탁해야 할 분명한 장애나 심각한 장애를 지닌 아이들도 있었다. 한 유명한 실례가 11세기 독일과 스위스 국경 부근, 보덴제(Bodensee)의 섬 라이헨아우(Reichenau)에 살았던 수사 헤르마누스 콘트락투스(Hermannus Contractus/‘신체가 수축된 자’)이다.⁶⁴ 움직이는 것과 말하는 것이 불가능이었던 그 아이는 — 그는 중증 뇌피질 손상 또는 척추 소아마비를 겪었다 — 평생 지속되는 통증에도 불구하고 수도원에서 살아남았고 역사

Brill, 1996), 14-40.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이들을 물 길는 자와 나무패는 자로 고용할 것을 권면하고 있다(수 9장). 동방교회는 현상된 아이들을 대체로 종신토록 수도원이나 교회의 시종자로 머물며 여호수아 9장에서 부과한 일들을 하게 하였다.

63 윗글.

64 필자의 견해에 따르면, 제사장 엘리도 장애인이었을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 신체가 온전하지 못한 자는 제단에 참여할 수가 없다. 사무엘상에서 엘리가 처음 소개될 때 “여호와와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삼상 1:9)있었다. 또한, 98세 나이로 사망할 때도 역시 그는 의자에 앉아 있었다(삼상 4:15). 하지만, 그의 제단 직무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나타나지 않는다. 어쩌면 그의 두 아들의 윤리적 비행과 제물 오용에도 이들을 제재하지 못한 것은 그의 신체적 불리의 영향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그는 성전 입구에서 직무를 행하고 있다.

서술, 음악, 수학과 천문학 분야에서 그 시대의 지도적인 유럽 학자 중 한 사람이 되었다.⁶⁵ 프랑스 고고학 발굴팀은 이분척추(二分脊椎, *Spina bifida*)로 출생한 아우구스티누스 수도회의 한 악장의 유골을 발견하였다. 그는 특권층 귀족으로 - 좋은 보살핌 덕분에 - 고령까지 살았다.⁶⁶

귀족층의 장애있는 아이들은 토지와 함께 수도원에 헌상되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래서 엘자스 셀레스타(Sélestat) 도미니크회의 수도원 공동묘지에서는 13세기에서 18세기 동안 태어나면서부터 신체장애가 있었던 수녀들의 매장지가 평균 이상으로 많다(대략 20%).⁶⁷ 귀족 가문들은 수도원 헌상을 통해 여러 측면에서 자신들의 부담을 경감시켰다. 수도원에서는 개인의 장애가 영성화되어 장애를 순교이자 온전한 신앙생활로 이해하였다.

7. 레위기 금령 속에 장애인 고용

구약성경의 금령은 시각 장애자들을 대함에 있어서 가학적 간계를 날카롭게 반대한다.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개정〕신 27:18; 비교. 잠 28:10). 이 금령은 총 12개의 저주 항목(신 27:11-26; 비교. 이스라엘의 12지파) 내에 위치한다. 특별히, 저주항목은 우상숭배, 노년의 부모 조롱, 근친상간이나 반사회적 비행을 주제로 한다. 매번의 저주 선언마다 백성들은 모두 “아멘”이라 화답하며, 기본적인 동의를 해야 했다. 이 단락에서 눈여겨볼 것은 장애를 지닌 사람들

65 Edgar Kellenberger, *윗글* (2011), 115.

66 *윗글*.

67 *윗글*.

에 대한 보호가 간접적으로 승인되었다는 것이다.

지혜 문헌인 시락서 그리스어 판본에서는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대한 보호를 직접 권고하고 있다. “배움이 불능한 자⁶⁸를 조롱하지 아니하여 너의 조상들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게 하라”(μη πρόσπαιζε ἀπαιδευτώ ἵνα μὴ ἀτιμάζωνται οἱ πρόγονοί σου, 시락 8:4). 놀랍게도, 이 금령에는 분명한 목적(ἵνα)이 있는데, 장애인을 조롱하는 자는 가정에 치욕을 가져다준다고 교훈한다.⁶⁹

마찬가지로, 청각 장애인을 모욕하거나 시각 장애인이 가는 길에 장애물을 두지 말라는 금령은 레위기 19장 14절에 나타난다. 이 금령 역시 악의적이거나 가학적 행위를 금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1) 금령의 위치와 형식

레위기 19장 14절은 이스라엘 사회 내에 공동생활을 규율하는 소위 제사장적 고백문답(레 19)⁷⁰ 속에 위치하고 있다. 레위기 19장은 구

68 GING, 18. 아파이투토스(ἀπαιδευτος)는 우준(stupid)하거나 교육받지 못한 사람(uneducated, 딤후 2:23)을 뜻한다. 필자는 어리석고 사리에 어두운 것을 의미하는 우매(愚昧)가 이에 적당한 상응어가 되리라고 생각한다. 후대 발견된 시락서 히브리어 판본은 ‘아파이투토스’를 כָּלֵל(에빌/바보, 속백, 우매)로 명명한다(Holladay, 6: 1. fool, simpleton, 2. citizenary). 물론 이 어휘가 다른 구절에서 ‘양육 받지 못한 자’나, ‘버릇없는 자’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요세푸스 *ant.* III 285; *contra Ap.* II 2, 3, 37-38, 130에서도 *apaideutos*와 *apaideusia*를 전자는 ‘멍청이, 문맹’으로, 후자는 ‘무학, 무식’으로 사용하고 있다.

69 조금 차이가 있는 번역도 가능하다. “네 조상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교육받지 않는 사람과 농담하지 말라!”

70 Erhard S. Gerstenberger, *Das 2. Buch Mose: Leviticus* (OTL;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1996), 238; Karl Elliger, *Leviticus* (HAT 4; Tübingen: Mohr Siebeck, 1966), 254; Lester L. Grabbe, *Leviticus* (OBC;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4), 103; Martin Noth, *Leviticus* (OTL; London: SCM Press LTD, 1977), 139; Rudolf Kilian, *Literarische und formgeschichtliche Untersuchung des Heiligtetigesetz* (BBB 19; Bonn: Peter Hanstein, 1963), 58-59. 그 밖에 레위기 19장은 (그 땅에 상주하는) 이방인들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18절)라는 유명한 계명도 있다(Gerstenberger). 레위기 19장은 점진적으로 확장된 필연법적 십계명 또는 12계명(Elliger 1966; 254)이 은닉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약성경 중 ‘가장 고도로 발전된 형태의 윤리’⁷¹로 불려지고 있으며, 이웃 동료에 대한 책임과 경건과의 상호 연결성을 강조하고 있다. 전체 명령은 필연법으로 이어지며, 계명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백성 회중, 즉 각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고 있다. 계명에 묘사된 정경은 그들이 속해 있던 공동체 내의 일상적 생활을 생생히 보여준다(토지의 경작, 공정한 협력, 사고파는 비즈니스, 이웃과의 교제, 귀신적 힘에 대한 태도 등).⁷² 매번 마지막 부분은 “나는 여호와니라”라는 후렴구를 사용한다. 이 후렴구는 이따금씩 확장된 형태로, “... 너희 하나님”이라는 말이 추가된다. 분명한 사실은 이곳에 통합된 계명과 금령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의지를 비준하고 있다는 점이다.

2) 금령의 소문맥적 해석

두 구절 속에는 그간 주석서에서 놓쳤던, 장애 고용과 일이란 주제가 숨어 있다. 먼저, 구절의 기본적인 이해에서 출발하여 고용의 현장을 살펴볼 것이다. 레위기 19장 14절은 레위기 19장 13-14절의 맥락에 있다.

לֹא־תַעֲשֶׂק אֶת־רֵעֶךָ וְלֹא תִגְזֹל וְלֹא־תִלְוֶן פְּעֻלַּת שָׂכִיר
אֶת־עַד־בְּקָרְךָ:

(Noth). 레위기 19장을 오경의 다른 십계명(출 20: 신 5)과 비교할 때 십계명이 두 번 중첩되었다는 주장도 있다(Kilian). 반면, 레위기 19장이 오경의 다른 10계명 형식과 무관하다는 주장도 있다(Grabbe).

71 Mark F. Rooker, *Leviticus. An Exegetical and Theological Exposition of Holy Scripture* (NAC 3A; Nashville, Tennessee: Broadman & Holman Publishers, 2000), 250; 노세영, “레위기 18-20장의 문학적 및 신학적 의미에 대한 연구: 레위기의 문학적 구조와 관련하여”, 『구약논단』 77집(2020년 9월 30일), 70-105. 노세영은 “레위기 19장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3-8절),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9-18절) 및 여러 가지 종류의 규례들(19-36절)로 구성되어 있다.”(90)라고 지적한다.

72 Martin Noth, *율글* (1977), 13.

14 לֹא־תִקְלַל חֵרֶשׁ וְלִפְנֵי עוֹר לֹא תִתֵּן מִכַּשָּׁל וְיִרְאֵת מֵאֲלֹהֶיךָ
אֲנִי יְהוָה:

[개정]

13 너는 네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삯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네게 두지 말며

14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⁷³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13a절와 b절은 “네 이웃”과 “품꾼”을 나란히 배치한다. 이런 배치를 통해, 이 양자가 동등권을 가진 것을 암시한다. 그리고 이웃과 품꾼을 억압하거나 강탈하지 말 것을 주지시킨다. 첫 번째 동사 עָשָׂק(아삭크/억압하다)는 권력이나 힘이 전제된 것으로 지불 능력이 없는 사람이나 경제적 기반이 약한 자들에 대한 수탈(레 5:21; 신 24:14; 사 52:4; 렘 7:6)이나 사회적·정치적 압박(신 28:29; 렘 50:33; 호 5:11; 시 103:6; 욥 35:9)을 뜻한다(HALAT I, 849). 두 번째 동사 נָזַל(가잘/‘강탈하다’[“착취”])은 강제를 통한 이웃 소유의 탈취를 말한다(레 5:23; 신 28:31; 사 21:23; 렘 21:12; 겔 18:7). ‘억압’은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는데, 일례로 주어야 할 정당한 몫을 변칙을 하는 것이다. 13b절와 연관하면, 품꾼의 일일 급여를 지연시키는 것⁷⁴을 포함한다. 품삯에 의존하는 사람들의 임금을 낮추거나(문자적으로, ‘강탈하거나’) 너무 늦게 지불해서는 안 된다. 이 두 편법은 비축한 재정이 없이 살아가는 품꾼들에게는 비참하고 끔찍한 결과를 가져다준다. 13절이 품삯에 의존해서 사는 사람들을 위한 금령이라면, 이 금령 역시 고대 사회를 비추어 볼 때 장애인이 고용된 경우에도 적절하다.

이어지는 14절은 장애인을 언급하는데, 이들을 13절에 보호하려

73 HALAT II, 1030-1032: ‘저주하다’라는 의미에서 히브리어 *qillel* (비교, 레 24:11, 15)

74 Mark F. Rooker, *윗글* (2000), 257.

했던 일꾼과 연결해 볼 수 있다. 가령, 귀먹은 자의 작업성과에 관해 그의 고용주가 탐탁지 않게 여겨 그 청각 장애인이 저주의 말을 듣는 것은 실제적으로 가능할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런 해설은 이 장면에서 개연성이 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저주가 미치는 파괴적 영향에 대한 확신이 분명했다. 하지만, 듣지 못하는 자가 그 저주를 방어할 수가 없다면, 그 위험은 심각하다.⁷⁵ 시각 장애인이 일꾼일 경우, 고용인이 길이나 일자리에서 장애물을 미리 치워두는 등 그 일꾼의 장애를 특별히 감안하는 것이 당연할 일일 것이다. 욥은 (고용인로서)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욥 29:15)라고 말한다. 그의 진술은 욥이 그러한 필요 조치를 하였다든 것⁷⁶을 의미한다. 이런 사실적 해석에 기초해서 본다면, 14절은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조롱’이 아니라 ‘고용주의 특별한 사려’를 다루고 있다.

그리고 14a절의 금령은 14b절의 긍정인 권고문으로 13-14절의 5가지 금령을 끝맺는다. 14b절의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어구는 구약성경에서 총 5회 사용되는데⁷⁷, 항상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적으로 더 강한 자의 책임을 권하며 끝맺을 때 나타난다. 가령, 채무자는 이자를 내지 말아야 하고, 기댈 곳 없는 노인들을 존경하며, 아무도 과한 이득을 받거나 힘으로 지배하려 하지 말아야 한다.

위와 같은 고용 현장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고용인의 가계가 속한

75 Martin Noth, *윳글* (1977), 141: “... there is a basic assumption that a curse uttered, even if the victim of it could not hear it, was nevertheless effective; it is therefore forbidden against a helpless person who was not in a position to take any counter-measures.”

76 Frank Hesse, *Hiob* (ZBK.AT 14; Zürich: Theol. Verlag, 1992), 163. 욥의 진술에 따르면,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한 그의 자비로운 행위의 효과는 그들이 이동할 때 상실한 신체 일부나 그 신체의 기능적 단절을 더 이상 감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있다.

77 그 밖에,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라”(자주, “하나님을 공경하라”로 번역된다)는 문구는 레위기 19:32, 25:17*, 36, 43에도 사용된다. 표시(*)는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로 종결된다.

친족이나 지파, 또는 — 메소포타미아나 포로기 후기 귀환자들의 명단을 통해서 볼 때 — 성소나 성전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일찍 레위인들은 도피성을 포함한 48 성읍을 할당받았다(민 35: 21). 이 성읍들은 해당 지역 제외와 무관하지 않았을 것이다. 종교 시설의 경우 켄기 문헌이나 포로기 이후의 성경 문헌을 참조해 볼 때, 맹인과 신체장애를 보육하고 고용하기에 가장 유력한 곳이었다. 따라서, 레위기 19장 13-14절의 제사장적 고백문답은 성소나 성소를 본래 주소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8. 나오는 말

본 소고는 구약 문헌과 켄기문자 문학에 기록되었던 내용을 토대로 장애아의 출생, 성장과 환경, 고용의 흔적들을 탐색하고 조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비교문화 연구와 문헌학적 접근법을 사용한다.

구약성경 문헌은 장애를 주요 주제로 언급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문학적인 서술의 맥락을 넘어서 장애는 고대 오리엔트와 구약성경 시대의 엄연한 현실이었다. 장애 발생의 자연스러운 환경으로 출생을 들 수 있다. 성경의 저자들은 사산이나 낙태의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사 37:3; 민 12:12; 욥 3:16; 전 6:3). 출산 과정에 겪었던 슬픔은 그 다음 아이의 이름에 반영되었다. 대체명은 출산 시 가족 형편을 반영해준다(므낱세, 다하트, 여호야김, 느헤미야, 단후멧, 솔로몬, 이드로). 감사명이나 소원명은 분만 과정에서 난산을 되돌아보게 한다(스마라, 에스겔, 브다히야, 베레스). 생리적으로 장애아의 분만 시 유산의 가능성이 있지만, 오랫동안 진행되는 출산 과정에서 산소부족의 대뇌 손상을 유발한다. 이런 장애는 부차적으로 신경계나 근육계에 이상을 일으키고 신체적 장애나 정신적

장애를 발생시킨다. 성명학을 통해 반추해 볼 때, 장애는 당시 부인할 수 없는 현실 일상이었음을 반영하여 준다.

장애인으로 태어난 아기가 생존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활동을 하였다는 사실은 구약성경과 메소포타미아 문헌을 통해 입증된다. BC 1700년까지 그 기원이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길가메쉬 서사시」에서, 천 조각을 걸쳐 입고 영양가 없는 음식을 먹고 있는 릴루/릴라투(Lillu/Lillatu)라는 인물이 등장한다. 이 본문은 (정신적인) 장애에도 불구하고 — 본인의 강인한 생존 의지 덕택이든 가족의 평균 이상의 수발을 통해서든 — 생존하였음을 알려 준다. 릴루(Lillu)는 우매와 정신적 장애, 모두를 의미할 수 있었다. 구약성경의 커실(*kēsil*/어리석은)의 개념에도 동일 현상이 관찰된다(잠 17:2; 시 49:11). 현실적 교육과 훈육을 목표로 하는 지혜문학에서 ‘어리석다’는 용어가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볼 때, 구약성경 시대의 사람들에게 장애는 전혀 동떨어진 것이 아닌 일상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장애아의 출생 이후, 그들의 생활환경은 신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데이르 엘-메디네(Deir el-Medineh)에서는 중류층 4살 소년과 이집트의 한 뇌성마비 여인은 상류층의 일원으로 신분에 걸맞게 매장되었다. 하지만, 경제적 압박이 심각한 시절, 유아 살해(메소포타미아 의료편람)나 유아 유기(사르곤, 모세, 이스마엘, 발가숨이 예루살렘)가 발생할 수 있었다. 유아 살해는 고대인들의 신앙 관습상 쉽지 않았으며 고비용의 의식(*namburbi*)이었다. 이로 인해 유기가 더 빈번했던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췌기문자 이름 중 ‘거리 출신 사람’(*Sulāia/Suqāia*), ‘개의 주둥이에서 건진 사람’(*Ina-pi-kalbi-irich*)이나 ‘도시 묘지 출신의 사람’(*Harīṣānu*)란 이름들이 자주 등장한다. 이들은 모두 노예이거나 신전에 부속된 사람, 또는 노동 인력들인데, 고귀한 도시가계로 신분 상승이 가능했다. 이런 이름에는 조상명이 부재한 것이 특징인 데,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주운

이후 입양의 절차가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장애아의 경우도 이와 동일하였을 것이 당연하다.

유기의 경우, 공공장소나 사람이 많이 드나드는 지점이나 강 이외에 신전에 맡기는 현상도 있었다. 쉼기문자 텍스트는 BC 3000년부터 여자와 아이들의 신전 현상을 기록하고 있다. BC 2000-1000년까지 토지와 동물, 사람의 현상은 넓게 유포되어 있었다. 혼외정사로 태어난 아거나 고아가 된 아이들뿐 아니라, 가족 중, 장애가 있는 일원 역시도 유아 유기의 대상이었다. 구약성경 언급된 신전 현상의 예로는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 중 “느디님 사람들”(스 2:42; 느 7:46-56)이 있다. 이들의 계보는 왕정까지 거슬러 올라가며(HAEI, 383; 수 9:21-27; 신 29:10), 느디님의 족장 중에는 조상명이 구체적인 장애명이 있었던 인물도 있었다(게로스, 가할, 바세아, 하그바, 하르사).

신전현상 전통은 중세 수도원에도 발견된다. 유명한 선교사 보니파티우스와 교리가 토마스 아퀴나스는 수도원에 바쳐진 아이들이었다. 장애인 수도사 헤르마누스 콘트라투스(역사, 음악, 수학과 천문학 분야에 지대한 공헌을 한다. 수도원에 헌상된 이들은 중세의 종교 엘리트 형성에 이바지하였다. 셀레스타 도미니크 수도원의 묘지에는 매장 인원의 약 20%가 장애인 수도자였음을 말한다. 신전 현상은 문화를 망라하는 현상이었고, 구약성경과 그리스도교 권의 경우, 이들은 성전이나 성소의 속한 사람으로, 성직 직원과 봉사자로 일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레위기 19장 13-14절은 재조명되어야 한다. 14절은 장애인에 대한 조롱이 주제가 아니라 고용인의 특별한 사려 요구에 초점이 있다. 그 요구가 레위기의 제사장적 고백문답에 기록되었던 점이 의미심장하다. 문화권을 망라한 신전현상 현상을 주목하여 볼 때, 이 금령은 평범한 사람들의 장애아를 돌보며 훈육할 수 있는 기관으로 가장 유력한 곳인 성전권에 고향으로 한다.

참고문헌

- 김선중, “에스라-느헤미야 연구 서설”, 「구약논단」 73집(2019년 9월 30일), 49-73.
- 노세영, “레위기 18-20장의 문학적 및 신학적 의미에 대한 연구: 레위기의 문학적 구조와 관련하여”, 「구약논단」 77집(2020년 9월 30일), 70-105.
- 채은하, “구약성경에 나타난 장애인의 현실과 장애인 신학의 한 시도”, 「구약논단」 14집(2008년 3월 31일), 28-50.
-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rankorder/2091rank.html>.
- Baker, Heather D.(ed.), *Prosopography of the Neo-Assyrian Empire 3/1 (PNA)*; Wino Lake: Eisenbrauns, 2002).
- Bauer, Walter (eds.), *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and Other Early Christian Literature (GING)*;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9).
- Holladay, William L., *A Concise Hebrew And Aramaic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Holladay; Grand Rapids, Michigan: Eerdmanns, 1971).
- Janowski, Bernd/Schwemer, Daniel, *Texte zur Heilkunde (TUAT.NF V)*;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shaus, 2010).
- Lexikon des Mittelalters*: Band 5, *Hiera-Mittel bis Lukanien (LexMA)*; Stuttgart: Metzler, 1999).
- Kaiser, Otto/Janowski, Bernd/Wilhelm, Gernot/Schweme, Daniel, *Texte aus der Umwelt des Alten Testaments. Band III - Weisheitstexte, Mythen, Epen (TUAT III)*;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shaus, 1997).
- Koehler, Ludwig/Baumgartner, Walter, *Hebräisches und Aramäisches Lexikon zum Alten Testament I/II (HALAT I/II)*; Leiden/Boston: Brill, 2004).
- Renz, Johannes(ed.), *Handbuch der althebräischen Epigraphik*, Band I (*HAE I*); Darmstadt: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1995).
- von Soden, Wolfram., *Akkadisches Handwörterbuch*. Band I (*AHw*); Wiesbaden: Harrassowitz, 1968-1947).
- de Jong, Mayke, *In Samuel's Image: Child Oblation in the Early Medieval West* (Leiden: E. J. Brill, 1996).
- Eidem, Jesper./Læssøe, Jørgen, *The Shemsbara archives 1. The letters* (Historisk-Filosofiske Skrifter, 23; Copenhagen: Kongelige Danske videnskabernes selskab, 2001).
- Elliger, Karl, *Leviticus* (HAT 4; Tübingen: Mohr Siebeck, 1966).

- Freedman, Sally M., *If a City Is Set on a Height*. Volume 1. The Akkadian Omen Series “Šumma Alu Ina Mēlê Šakin”, Tablets 1–21 (Philadelphia: Occasional Publication of the Samuel Noah Kramer Fund 17, 1998).
- Gerstenberger, Erhard S., *Das 2. Buch Mose: Leviticus* (OTL;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1996).
- Grabbe, Lester L., *Leviticus* (OBC;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4).
- Grohmann, Marianne, *Fruchtbarkeit und Geburt in den Psalmen* (FAT 53; Tübingen: Mohr Siebeck, 2007).
- Gourevitch, D., “Au temps des lois Julia et Papia Poppaea, la naissance d’un enfant handicapé est-elle une affaire publique ou privée?”, *Ktéma* 23 (1988), 459–473.
- Heeßel, Nils P., *Babylonisch-Assyrische Diagnostik* (AOAT 43; Münster; Ugarit Verlag, 2000).
- Hesse, Frank, *Hiob* (ZBKAT 14; Zürich: Theol. Verlag, 1992).
- Hübner, Ulrich, “Sterben überleben leben. Die Kinder und der Tod im alten Palästina”, C. Karrer-Grube(Eds.), *Sprachen-Bilder-Klänge*. Festschrift für R. Bartelmus (AOAT 359; Fribourg; Ugarit-Verlag, 2009), 49–73.
- Karenberg, Axel/Leitz, Christian, *Heilkunde und Hochkultur*, Band 1 (Munster: Lit-Verlag, 2000).
- Kellenberger, Edgar, *Der Schutz der Einfältigen. Menschen mit einer geistigen Behinderung in der Bibel und in weiteren Quellen* (Zürich: Theol. Verlag, 2011).
- Kilian, Rudolf, *Literarkritische und formgeschichtliche Untersuchung des Heiligtumsgesetz* (BBB 19; Bonn: Peter Hanstein, 1963).
- Krueger, Paul/Mommsen, Theodor/Schoell, Rudolf/Kroll, Wilhelm, *Corpus Juris Civilis*. Digest. XXV 3,4 (Toronto: Robarts - University of Toronto, 1888–1895).
- Lambert, Wilfred G., *Babylonian Wisdom Literature* (Winona Lake, Idiana: Eisenbrauns, 1996).
- Maul, Stefan M., *Zukunftsbewältigung. Eine Untersuchung altorientalischen Denkens anhand der babylonisch-assyrischen Löserituale (namburbi)* (Mainz: Von Zabern, 1994).
- _____, *Das Gilgamesch-Epos*, neu übersetzt und kommentiert, 4. Aufl. (München: C. H. Beck, 2008).
- Noth, Martin, *Leviticus* (OTL; London: SCM Press LTD, 1977).

- _____, *Die israelitischen Personennamen im Rahmen Der Gemeinsemitischen Namengebung* (BWANT 46; Stuttgart, 2010)
- Polz, Daniel (Eds.), *Für die Ewigkeit geschaffen. Die Särge des Imeni und der Gebeset* (Mainz;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2007).
- Ritzmann, Iris, *Sorgenkinder. Kranke und behinderte Mädchen und Jungen im 18. Jahrhundert* (Cologne/Weimar/Wien: Böhlau, 2008).
- Rooker, Mark F., *Leviticus. An Exegetical and Theological Exposition of Holy Scripture* (NAC 3A; Nashville, Tennessee: Broadman & Holman Publishers, 2000).
- Rölling, Wolfgang (ed.), *Das Gilgamesch-Epos* (Stuttgart: Verlag Philipp Reclam, 2009).
- Rudolph, Wilhelm, *Esra und Nehemia*, Handbuch zum Alten Testament (HAT 20; Tübingen: Mohr Siebeck, 1949).
- Soebo, M. “כִּסְיֵי לֵבָיִט *k’sil Tor*”, *THATI* (1971), 836–838.
- Stamm, Johann J., *Die akkadische Namengebung* (MVÄG 44; Leipzig: J. C. Hinrichs, 1939=1968).
- _____, “Hebräische Ersatznamen”, *Beiträge zur hebräischen und altorientalischen Namenkunde* (OBO 30;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80), 59–80.
- von Soden, Wolfram, “Die 2. Tafel der Unterserie *Šumma Ea liballit-ka von alandimmū*”, *ZA* 71 (1981), 109–121.
- Wahl, Joachim/Kokabi, Mostefa, *Das römische Gräberfeld von Stettfeld, 1 Osteologische Untersuchung der Knochenreste aus dem Graeberfeld* (Forschungen und Berichte zur Vor- und Frühgeschichte in Baden-Wuerttemberg 29; Stuttgart: Theiss 1988).
- Wunsch, Cornelia, “Findelkinder und Adoption nach neubabylonischen Quellen”, *AfO* 50 (2003/2004), 182–183.
- Zwickel, Wolfgang (eds.), *Herders Neuer Bibelatlas* (Darmstadt: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2013).

검색어

장애, 작명법, 출산, 성전직원, 레위기 19장

[ABSTRACT]

Traces of Birth, Growth, and Employment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 in the Context of the Old Testament and Ancient Orient Culture

Min-Su Oh
Daeshin University

This paper aims to explore and shed light on the traces of the birth, growth and environment, and employment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based on records in Old Testament literature and cuneiform literature. To this end, the researcher uses cross-cultural research and a philological approach.

Biblical writers were aware of the possibility of stillbirth or abortion (Isa 37:3; Num 12:12; Job 3:16; Eccl 6:3). The ‘compensation name’ reflects the family circumstances at the time of birth. ‘Gratitude name’ or ‘Wish name’ looks back on the difficult delivery during the delivery process. The prolonged process of childbirth causes cerebral damage due to lack of oxygen. These disorders secondarily cause abnormalities in the nervous system or muscular system and cause physical or mental disabilities. Looking back through the study of statements, disability was an undeniable daily reality at the time.

In 「The Epic of Gilgamesh」, discovered in 1700 BCE, there is a character called Lillu/Lillatu who wears pieces of cloth and eats low-quality food. Lillu could mean both foolishness and mental handicap. The Old Testament *kēsîl* (fool) is an equivalent concept (Prov 17:2; Ps

www.kci.go.kr

49:11). In wisdom literature aimed at education and discipline, the term ‘foolish’ appears frequently. Through this, it can be confirmed that for the people of the Old Testament era, disability was not an isolated thing, but a daily life.

In Deir el-Medineh, a middle-class four-year-old boy and an Egyptian woman with cerebral palsy were buried as members of the upper class, befitting their status. In times of severe economic pressure, infanticide (『Mesopotamian Medical Manual』) or infant abandonment (Sargon, Moses, Ishmael, naked Jerusalem) occurred. Among cuneiform names, names such as ‘the man from the street’ (Sulāia/Suqāia), ‘the man rescued from the dog’s snout’ (Ina-pi-kalbi-irich), and ‘the man from the city graveyard’ (Harišānu) appear frequently. All of them were slaves, people attached to temples, or laborers, and through adoption it was possible to rise to a noble urban family. It is conceivable that the same may be true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During the abandonment, there was a dedication to the shrine. Cuneiform texts record temple dedications of women and children from 3000 BCE. From 2000-1000 BCE, the dedication of land, animals, and people was widespread. The genealogy of the “Nethanims” (Ezra 2:42; Neh 7:46-56) goes back to the royal court (HAE I, 383; Josh 9:21-27; Deut 29:10), and among the Nethanim patriarchs, ancestors are named. There were also people with this specific disability name (Qeros, Gachar, Paseah, Haqupa, Harscha). The tradition of temple dedication is also found in medieval monasteries (Bonifatius, Thomas Aquinas, Hermanus Contractus). Consecrated to the monasteries, they contributed to the formation of the medieval religious elite. In this context, Leviticus 19:13-14 recorded in the priestly confession of Leviticus can be reviewed. Verse 14 is not about ridicule of disabled people, but rather about the employer’s request for special consideration. Looking at the phenomenon of temple

dedication that encompasses the cultural sphere, this prohibition is home to the most influential place, the temple region, as an institution that can take care of and discipline disabled children of ordinary people.

key words

People with disabilities, nomenclature, birth, temple personal, Lev 19

투고일 : 2022년 12월 27일

심사일 : 2023년 02월 11일

게재 확정일 : 2023년 02월 16일

www.kci.go.kr